



◇의정부시시암연합회, 용현성당, 대광교회 등 3대 종교 신도 등 200여명은 11월 30일 의정부시 통일안국사에서 '불우이웃 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를 펼쳤다.

김장 담그기...환경정화...국난극복 기도

종교인 합심 자비 실천

한국을 대표하는 3대 종교가 종교이념을 초월해 손을 맞잡고 이웃사랑을 잇달아 실천해 세대의 혼란을 화해하고 있다.

이러 5일 오전 서울 도봉산 망월사 부근, 의정부지역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성직자와 신도 100여명은 망월사 산할을 하며 '종교합동 등산대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안·고·실·미' 운동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종교간 벽 허물기 행사를 가졌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란 말을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웃간의 유대를 강화하자는 이 운동은 남북, 동서, 종교간에 벌어진 마음을 하나로 이어보자는 취지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사장 원은, 이하 좋은모임)이 펼치는 종교화합운동의 하나.

의정부시 제2전국위원회가 1,400만인의 예산을 지원할 정도로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좋은모임'의 종교 화합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

는다. 오는 19일 오후4시에는 의정부 삼천리회관 에식당 5층 부폐회관에서 '종교합동 국난극복 승년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종교와 사회의 화합을 위해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 대해 각 종교단체에서 연구발표를 한 뒤 친교의 시간도 갖는다.

'좋은모임'의 이진식 사무국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내 불우이웃을 보살피고 종교단체끼리 화합하기 위해 김장 나누기, 환경보존 캠페인, 국난극복 합동기도회 등을 기획했다"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때마다 열리는 종교화합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계사(주지 성광)와 강북구 수유1동 성당(주임 이종남 신부), 송암교회(당회장 박승화 목사) 역시 6일 종교연합 바자회(11월 11일)로 모금한 2,006만8,370원을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로 전달해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성금을 전달받은 어린이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엄하나(16), 임아름(14)양 등 7명이다.

의정부시시암연합회 회장 지섭스님(원각사 주지)은 "자비와 사랑의 정신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화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종교인들이 앞장서 동서·남북화합을 이루고 자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일본군 위안부 출신 김군자 할머니

'희망주는 시민'에 선정

전 재산 사회환원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일본군 위안부 출신 김군자(75) 할머니가 시민운동가 100인이 뽑은 '우리시대 희망을 주는 시민'에 선정됐다.

참여연대 월간 소식지(참여사회)는 최근 전국의 시민운동가 100인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시대 희망을 주는 인물' 중 시민부문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김군자 할머니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김 할머니는 지난 8월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평생 모은 재산 5천만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다. 할머니는 17세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20세까지 위안부 생활을 했으며, 정부보조금과 단추꾸기 등 소일거리로 모은 재산을 내놓아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한편 1935년부터 10년간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한 이후 정부보조금과 민간단체 지원금 등으로 모은 전 재산 4천3백만원을 지난 6월 베트남 민간인 학살 진실



위원회에 기탁했던 故 문명금 할머니도 '희망을 주는 인물' 후보에 올랐다. 문 할머니는 11월 지방으로 발세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opia.com)

봉축 장엄등 강습회

조계종 '18-22일' 등 두차례

대한불교조계종 봉축위원회(위원장 장재)는 18일~22일, 내년 1월 8일~12일 두 차례에 걸쳐 '봉축 장엄등 제작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연등 축제의 상징인 장엄등의 배대 및 중심대 만들기, 전기 설치 등의 제작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참가자는 5인 1조가 되어 가로 세로 2m 크기의 탑등, 코끼리등을 실수로 제작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강습회 참가단체를 대상으로 이후 단체 장엄등 제작에도 지원한다. 강습회 모집인원은 1·2차 각각 40명씩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두식 기자

불교자원봉사단 '동일씨앗 가족 2001 행사'

탈북주민 34명 생활체험

탈북주민 교육기관인 안성 '하 나인'에 기거하고 있는 탈북주민 34명이 부처님과 함께 하며 따뜻한 하루를 보냈다.

이들은 6일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탈북주민 남한사회 이해를 돕기 위해 주최한 '동일씨앗 가족 2001 행사'에 참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동대문시장과 경복궁을 돌며 남한의 물가와 문화를 체험했다.

이들 탈북주민들은 서울 노원구 사천왕사에서 출발, 지하철을 이용해 동대문시장에 도착한 뒤 경복궁과 흥인 시장을 둘러보며 거대한 시장규모와 다양한 상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 지급

한 2만5천원으로 의류를 비롯해 생활품, 서적 등 각자 원하는 물품을 직접 구입하고 점심을 해결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남한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물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탓에 상품 이름이나 물가, 문화에 대해 생소해지는 표정은 역력했지만 자원봉사자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됐다.

10년간 군 생활을 했다는 이대정(가명, 42)씨는 "오늘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거듭 표했다.

북한에서 절도공무원으로 일하



◇한 탈북주민이 노점상에서 빚을 사며 자원봉사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다 지난 8월 한국에 들어온 윤일 오(가명, 40)씨는 "남한과 북한에 생활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가게 됐다"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남을 돕는 스님들을 훌륭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로 나섰던 박

종(55)·박후애(53) 사촌자매 오(가명, 40)씨는 "남한과 북한에 생활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가게 됐다"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남을 돕는 스님들을 훌륭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영우 기자

진각종 총금강회 회장

백진호씨 재선출

진각종 총금강회는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종인원에서 정기 54년도 임원 및 대의원 수련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백진호(사진·시정심인당) 현 회장을 재선출했다. 감사에는 민정호(밀각심인당)씨, 노성재(탐주심인당)씨가 각각 선임됐다.



안으로 2년간 총금강회를 이끌 백진호 회장은 인사를 통해 "다시 중임을 맡게 된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총금강회와 종단이 더불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5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수련회에서는 남달 조성, 자성학교 활성화 등의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이경숙 기자

종교연합 화장장려 세미나

14일 영천 만불사서

재단법인 만불회(회장 학성)는 14일 오전 11시 경북 영천 만불사에서 남달당인 극락원 왕산당 개원을 기념한 '종교연합 화장장려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모제도 개선 실천을 목적으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4대 종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날 세미나는 김시덕(국립민속박물관)씨의 '올바른 장모문화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에 이어 불교측에서는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이, 개신교는 정두은 목사(기독교장래문화협의회), 천주교는 나기정 신부(대구 가톨릭대 교수) 유교는 이승관씨(성균관 전의)가 각 종교의 장례문화 개선운동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한편 만불회는 54명 규모의 극락당 조성, 자성학교 활성화 등의 실천을 신중하고 영가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왕산당을 설치, 이날 오

'독도찾기 본부' 창립

10시 30분 개인식을 갖는다

왕선당은 개인단·부부단·가족단으로 이을 가능하다. 이어 세미나 뒤에는 '화장유언 날기 날대식'을 병행하고 화장장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 만불회는 96년부터 부도담묘 2000기를 설치해 불교식 장례문화를 선도해 왔다. (053)756-0101 한영우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성사 '봉사단' 모집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달라이라마의 2001년 방한 성사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경화봉사단'을 모집한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봉사단원 및 방한준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방한준비, 본 프트 그랜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며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실비도 제공한다. 모집 분야는 영문 번역(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관련 영문자료 번역) 3-4명, 한글및 맵킨트쉬 편집(자료집, 팸플릿 제작) 1-2명, 전화 및 메일 발송 4-5명, 웹디자인 1-2명이다. 모집기간은 12월 20일까지. (02)730-8586 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빛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은국·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민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재가연대 '뉴스레터' 창간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6일자로 주간 '전자 뉴스레터'를 창간했다. 이 뉴스레터에는 심포지엄, 포럼, 수행모임, 성명서, 불교NGO 소식 등을 실었다. 분기별로 책자와 해 배부도 할 계획.

한편 재가연대는 16일 오후 5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제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김재경 기자

청원서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총회 유남포 의장님 귀하
존경하는 중앙총회의 장님!
본원사는 불교법안제정 중앙의 중심에서 서서 정법안정과 범종수호에 앞장서 온 종단의 대본산 수사관(首寺)로서, 지난 11월 23일 선양사에서 개최된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 중대한 하자(瑕)가 있다고 판단되어 종단의 장래를 염려하는 애종심과 파사연정(破邪顯正)의 결연한 의지로 우리의 견해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드리오니 가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중앙총회에서 선출된 송종원 당선자는 총무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종단의 총원총법(총무원법)에 의하면 총무원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법계(法階)가 종사 이상이어야 총무원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송원님은 법계가 종적으로 자격이 미달되어 원칙적으로 총무원장 후보자격이 없습니다.
총원총법에 명문화된 선출방법은 강제추진추장으로 중앙총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법규의 권위는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총무원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미달자가 총무원장에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자동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원님은 자격없는 사람이 임명보하여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참고: 송원님은 1년전인 1999년 3월에 실시한 법계고사에서도 종사법계를 받지 못하였음)
2.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瑕)가 있습니다.
가) 송원님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 2차 권선투표에서 26대 27로 단 한표차로 총무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총무원장에 임명받은 사람은 임후보(후진)와 동시 총회의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투표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종단은 종도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직접선거가 아니고 종회의원이 종도의 권한을 대신하여 총무원장을 뽑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후보자는 자신의 문제에 관련된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하여 송원님은 투표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척사유는 대리인이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사회단체에 적용되는 불문율임) 따라서 투표권이 없는 후보자가 자신에게 표를 찍어 단 1표차로 당선된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나) 총무원장은 종단의 대표로서 앞으로 4년동안 종단운영을 책임질 행정수반이므로 후보자에게 자신의 소신과 종적을 발표하는 시간은 주무르며, 총회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비교평가하여 합당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후보자와 총회원들의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실에서 이루어진 약법에 의한 비민주적 선거가 된 것입니다.
3. 송원님은 출기승려로서 유사종교에 심취한 사람으로 인격과 자질이 문제가 있습니다. 송원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야산에 있는 마음수련교육원은 유사종교단체에 가입하

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유발(有髮)상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성불교는 평생을 수행해도 성불할 수 없으나 이곳에 들어와 3주일만 공부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정통불교를 폄하하고 이단설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발언으로 주위사람(전처, 도반, 선도 및 일반종도)들을 끌어들이는데 앞장섰으며, 이러한 공로로 이 단체의 서용시 협의의 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종도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여왔고, 종단공판인 성주암 소유의 불교재산(부산소재 약5억 상당의 부동산)을 이 단체에 헌납하는 등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단적인 동종행동을 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종단발전은 저해하는 해동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상법법에 의하면 교리에 대하여 이단설을 주장하거나 타 단체의 간부직에 있는 자는 정계(제탈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송원님은 총무원장은 그만두고 일반종으로서 정계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이처럼 자기적력도 없고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종단을 맡겨도 좋을 것이지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4. 송원님은 선거기간 중 배척(賈)과 금품살포 같은 부정행위를 지행한 의욕이 있습니다.
가) 우리종단은 그동안 깨끗한 선거를 통하여 총무원장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송원님은 이번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을 동원, 사찰을 방문하여 불친근 명목으로 일부 총회위원들에게 적지않은 금품을 살포하였으나 하한 근거없는 남성을 피뜨려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인신공격에 서슴치 않으므로써 사상이없는 불법행위를 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질스런 선거운동은 사회에서도 법률로 금지하는 불법행위로 종단의 장래를 위해서도 마땅히 규정되고 응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송원님은 모 총회의원스님에게 자신이 총무원장이 되면 부원장직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저지기도 못한 배척행위를 남발하였으며, 총무원장이 되고 나서는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을 하는 등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5. 송원님은 실연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여 종도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가) 송원님은 자신이 총무원장이 되면 사찰본담금을 폐지하고 본인의 재산(건물)을 팔아 종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돈 많은 국가지도자가 국민의 세금을 없애고 자기돈으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선거후에는 그런 공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음)
종도의 자존심을 깰것과 종단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어리석은 방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서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강남 일원동에 소재한 불국사(임)에 총무원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일원동 불국사는 공원을 지어미 군사보호지역에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이미 오래 전에 (박사봉 총무원장 당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불가 결론을 내린 곳입니다.
다) 일원 동공사에 동방대학을 건립하겠다는 공약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또한 산공원이 들어선 이후 집 한 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말만 이 땅을 들어 올려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대공사를 예산수급

책도 없이 송원님이 무슨 돈으로 총무원과 학교를 짓겠다고 호언장담하여 종도를 기만하는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 심사배제를 명분으로 종도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송원님은 평소 대교종이 삼사를 위한 종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엔 삼사와 친인방을 배제하기 위하여 총무원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삼사는 불교법안제정 중앙의 범종을 계승하고 정법을 지키기 위한 종원수호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본원사는 사종의 재산을 받아 종단에 제공하는 등 종단에 큰 이익이 있을 때마다 혼연인체가 되어 종단을 지원함으로써 종단의 재정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본원사는 앞으로도 종단을 수호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경회와 능력을 가진 사람과 종도가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화려했던 과거의 전통종단의 위상과 역사를 되찾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종단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삼사배제라는 실의없는 허구적인 명분을 내세워 종단을 분열시키려 하는 것은 실로 한심한 일로 그의 사고와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론
우리종단은 한국불교 1천6백년의 역사를 계승한 전통종단으로 불교법안제정 이종욱 김법린 임기산 박대원 안덕암 이남재 박영지 우백암 박사봉 스님같은 덕과 지혜를 겸비한 지도자가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도자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종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위에 열거한 몇가지 사례를 보면 송원님은 정통불교를 비하하는 이단승으로, 총무원장으로서의 인격과 자질이 문제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총무원장은 한 경우 종단의 장래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로써, 우리는 송원님을 총무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철폐 또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원요지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탈법적 선거운동과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선거과정의 총체적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총회가 종회운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송종원 당선자의 ①유사종교단체 가입과 포교활동시 및 재산 언닐성 ②금품살포 같은 선거기간 동안의 부정행위 ③연명법상 총무원장 후보자의 자격요부 ④공약사항에 대한 실연기성 여부 ⑤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종도들에게 공지·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뜻있는 종도들과 연대하여 확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4년 12월 1일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주지 박인공